

石川の 詩創作 精神-思想과 詩學

-聽松, 息影, 大方-

최한선*

<차 례>

1. 시작하는 말
2. 논의의 이론적 배경
3. 논의의 목표
4. 논의의 전개
5. 논의 및 결론

<국문초록>

석천 임억령은(1496-1568)은 조선 중기를 대표한 시인이다. 그는 2,500여 수가 넘는 많은 시 작품을 남겼는데 그 것은 크게 서정시와 서술시로 대별된다. 그가 이렇게 많은 시를 창작한 데에는 분명 그만의 독특한 시 창작 정신 곧 시학의 작용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시인의 시학은 사상과 시대 환경, 독서 취향, 스승의 영향, 본인의 기질 등이 융·복합 된 것임은 두말을 요치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시인의 사상은 시학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천은 현실을 중시하는 유학자였으며 그의 母土는 경국제민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적 기저는 유학이 아닐 수 없다. 석천은 독서를 통하여 그의 유학적 사상을 더욱 공고히 다졌는데 도연명의 영향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도연명은 「중용」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겼던 선구자로서 어디든 그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 한다는 생각을 지닌 인물이었다. 석천은 현실에 충실한 유학자로서 「중용」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는데

* 전남도립대학교

그의 현실 비판, 애민 지향 등의 서술시는 그러한 데서 창작된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석천은 스승 놀재로부터 「장자」를 소개 받고 그 사상을 체득하였으며, 독서를 통하여선 「노자」와 불교의 세계를 접하기도 하였다. 이런 다양한 사상은 유학을 심층 사상으로 그의 사상적 깊이를 더하여, 평담하고 자득한 서정시의 세계를 개척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결국 석천은 유학을 비롯한 「장자」 「노자」 불교 등 다양한 사상의 결합을 통하여 유학의 입장에서 현실 인식, 현실 비판, 자연 완상, 사대부로서의 사명 등을 시로써 형상화 내는데 적절한 그만의 시학을 형성하여 많은 작품을 창작했다고 판단하는바, 그의 시에 나타나는 장자적 사유나 불가적 취향, 노자적 지향 등은 현실 문제의 해소나 풀이의 한 방편이었지 사상의 경도가 아니었음을 놓쳐서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 임석천, 유학자, 중용, 사상, 시학, 서정시, 서술시

1. 시작하는 말

임석천은 시인이다. 정치가요 행정가이며 시인으로 통하는 조선의 문인들이지만 임석천은 아마해도 시인이라고 봐야 옳을 듯하다. 이는 퇴계가 석천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학시추보백學詩追甫白(시는 두보와 이백을 배웠고)에서도 확인되는 바다.¹⁾ 석천의 시는 서정시와 서술시로 대별되는데 서정시는 귀거래 의식과 계산풍류溪山風流 및 평담平淡으로, 서술시는 자유지향, 현실 비판, 민중지향 곧 애민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결국 현실비판, 애민, 계산풍류, 평이平易와 자율自律은 석천의 시학이 빚어낸 그의 시 세계를 압축적으로 드러낸 말이라 하겠다.

1) 이황, 『퇴계선생문집별집』, <회암대수견방론시>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1496-1568)은 2천여 수의 시를 남겼다.²⁾ 적잖은 그의 시는 분명 어떤 시학에 기반을 한 창작의 집적물이라고 생각하든 바 그의 시를 온당하게 감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학의 구명이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그런데 시 창작의 정신이나 태도, 원리라 할 수 있는 시학詩學은 어떤 사상에 기반 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인의 사상 형성은 사승적師承的, 학문적, 사회적 분위기, 독서 취향 등의 요인 작용이 있겠는데 석천의 경우는 외숙 박근朴鯤과 스승인 놀재의 가르침, 독서 취향, 당대 호남 사람의 사회적 분위기 등의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어려서 부친을 여윈 석천은 모친 박씨의 엄하면서도 강한 성품에 의해 훈육되었는데 아우 백령과 함께 일찍이 놀재 박상(1474-1530)의 문하에 들어 수학했다. 그때 놀재는 두 형제를 각기 달리 평했는데 놀재상수訥齋嘗授석천石川장자왈莊子曰 이필위문장爾必爲文章/ 수송선授崇善논어왈論語曰족위관각지문足爲館閣之文³⁾이라 하였는바 이때부터는 아닐지라도 석천과 「장자」와의 인연은 오래 동안 지속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석천은 앞서 말한 두보와 이백 외에도 독서를 통하여 굴원, 도연명 등 귀거래를 갈망하였거나 실천한 중국의 시인들에게서 많은 영향과 감화를 받았다.⁴⁾ 석천은 특히 도연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독서를 통한 영향이라 할 것인바 그로부터 「중용」 정신의 체득體得이 그 것이다. 도연명은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목도目睹하고 관리의 부패와 사회의 험난함을 깊이 느껴<귀거래혜사歸去來兮辭>를 읊고 독선기신獨善其身의 유가사상을 귀은歸隱으로 실천했거니와 그의 귀거래의 실천과 <귀원전거歸園田居> <이거移居> <회고전사懷古田舍> <음주飲酒> 등의 전원시편을 통한 순수한 전원예 대한 열망 및 <더화원기桃花源記> <오류

2) 석천의 시는 규장각본 중심으로 2,494편이며 다른 이본을 합할 경우 2,500여 편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박동량, 『기재잡기』 중, 《역대구문》 三

4) 줄고, 「도연명이 호남시단에 끼친 영향」, 『동아인문학』(제 6집). 동아인문학회, 2004.

선생전五柳先生傳> 등의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초연하고자한 생활태도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단순한 선망을 넘어선 흠모欽慕이 대상이었다.

이러한 도연명의 자세는 「중용」 제 14장에서 말한 군자君子/소기위이행素其位而行/불원호기외不願乎其外/소부귀행호부귀素富貴行乎富貴/소빈천행호빈천素貧賤行乎貧賤/소이적행호이적素夷狄行乎夷狄/소환난행호환난素患難行乎患難/군자무입이부자득언君子無入而不自得焉 곧 군자는 그가 처한 현재의 처지에 따라서 그의 도를 행한다는 말의 실천에 충실한 것이다. 이는 거이이사명居易以俟命함이고, 따라서 불원호외不願乎外인 것이다. 곧 현재의 처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중시한 말로써 소인처럼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조선 선비들이 도연명을 흠모하고 숭앙한 것은 그의 귀거래를 통한 귀은歸隱의 실천이 돋보인 것이었거니와, 여기에 이백李白, 백거이白居易, 맹호연孟浩然, 주희朱熹 등 중국 문인들의 그에 대한 흠모적인 태도의 영향과 송대 학자들의 호평好評도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어쨌든 도연명의 「중용」 정신 실천에 대한 흠모欽慕 또는 존숭尊崇의 풍조는 비단 호남시단이나 조선 시대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봉건시기에 중국의 일부 문인들이 득의得意할 때면 벼슬길에 나서서 조정이나 관청에 드나들다가도 실의失意 하였거나 조정에 불만이 있으면 전원엔 은거하여 청고淸古하고 담박淡泊한 생활을 하면서 자연경물自然景物을 벗 삼거나 시를 짓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 전원문학을 형성한 이래⁵⁾ 고려와 조선의 문인들은 자신과 시대가 상치相馳할 경우 그런 것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도연명은 「중용」의 주장과 같이 마땅히 처한 곳에서 낙도樂道하는 이른바, 「시경」의 연비려천鳶飛戾天 어약우연魚躍于淵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세계를 갈망하고 그를 실천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도연명의 정치사상은 유가儒家의 치국평천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며 그의

5) 위옥승, 『한국문학에 끼친 중국문학의 영향』, 아세아 문화사, 1994, pp. 135~137.

귀은歸隱은 공성신퇴功成身退나 독선기신獨善其身の 실천으로서 순자연順自然 곧 낙천지명樂天知命을 발전시킨 것이었다.

석천의 시학 형성에는 유학의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중용」의 정신이 밑자리를 차지한 것인바 그것은 도연명이 보여준 거이居易 곧 현재의 위치에 처하여 천명을 기다리는 귀은歸隱의 선행적 실천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국제민의 이념에 충실해야할 사대부로서 특히 의리와 명분을 추구하는 도학자적 입장에서 현실세계가 이데올로기의 지향세계와 조화·합일되기를 바라는 것은 간절한 소망일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질 못하고 가망이 없어만 보일 때, 정치가이자 시인인 석천은 이미 조화와 합일의 경지에 도달한 도연명이 어찌 부럽지 않았겠는가?

요컨대 석천은 당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적 차원에서 도연명의 귀전歸田을 동경한 것이라 여겨진다. 석천은 자기보다 앞서 혼탁한 시대를 살았으며 결코 덜하지 아니한 부정과 부패로 점철된 모순투성이의 사회를 경험한 도연명이 스스로의 삶의 목표와 이상을 바꾸어 그것을 현실세계에서 전원을 통하여 실현해 옮김으로써 우뚝한 경지를 개척한데 대해 부러움과 흠모를 지녔음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석천 자신의 시대가 자꾸만 이상과 괴리되어진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도연명이 생각난다’ ‘오두막살이만을 사랑했다’는 식의 시적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다. 6)

석천이 당대현실에 충실하면서 유자로서의 이념을 실행에 옮기려했을 때 혹은 조야朝野의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정치현실을 객관적인 자세에서 바라다보았을 때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 컸으며 따라서 발생되는 갈등 또한 심각했었다. 파란의 정치 소용돌이와 그에 따라 부침하는 지우知友들을 통하여 때론 그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서 체득된 현실극복의 시적 대응은 다름 아닌 귀거래 정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석천의 시

6) 줄고, 앞의 논문.

에서 귀거래는 그 세계의 몰입 곧 현실부정이나 망세忘世의 은둔이 아니라 은구적隱求的인 것이었다. 요컨대 귀거래의 표명은 현실적 갈등 해결의 한 방안이었다. 이런 도연명의 태도는 석천의 시학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석천의 시학詩學은 자연스러운 성정性情의 유로流露, 시 제작에서의 자유로움 추구, 시어의 선택이나 시 형식에서의 기교 배제, 시의 내용에 있어서 사사로운 개인적 문제의 관심 지양, 경국제민적 유학자의 본분 충실, 현실적 생활인의 모습 반영, 보편적 관심사의 지향, 주제 표출에 있어서 심각성 배제, 전달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소재의 수렴 등이라 하겠다. 이 가운데서도 자연스러운 성정의 유로는 석천 사상의 가장 핵심에 자리한 유학자로서의 본분에 기반한 시학이라 하겠다. 이제 절을 달리하여 이러한 시학의 원천인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논의의 이론적 배경

2.1. 역사적 장르로서의 가사는 전·후기 가사의 동태적 변화에 주목하여 전기 가사는 서정·서사·교술성의 장르적 성격 가운데 어느 하나를 중심적 정신으로 삼고, 다른 둘을 보조적 장치로 포용하는 장르적 지향을 보인다.

2.2. 장르적 복합성은 임·병 양란 이후 사회의 전면적 개편이 요구되면서 각 지향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그 서정성·서사성·교술성이 각각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⁷⁾

7) 김학성, 「가사의 장르성격 재론」,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3. 논의의 목표

- 3.1. 석천은 유학儒學 사상 실천과 경국제민을 모토母土로 한 유학자이다.
- 3.2. 석천 시학의 사상적 기반은 유학의 중심 아래 불가, 노자, 장자 등의 사상이 복합된 것이다.

4. 논의의 전개

조선시대 가사가 임·병 양란 이전에는 서정과 서사 또는 교술 중 하나가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둘이 보조적 역할을 한 장르 복합의 성격을 지닌 반면, 임·병 양란 이후에는 그러한 장르 복합 현상이 희미해져 서정, 교술, 서사 중 하나의 장르 성격이 강하게 실현되었음은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석천의 시문학은 유학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핵심이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은 뒤, 여기에 불가나 노장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 외에 굴원, 도연명, 이백, 두보 등 독서를 통하여 체득된 문학적 영향도 그의 시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두말을 요하지 않는다.

석천의 한시는 크게 관조와 감상의 의경을 말한 서정시와 풀이와 해소의 서술시로 대별되며 서정시는 친 불가적 지향, 귀거래의 의지, 계산풍류와 평담의 세계, 평이와 담박 등을 담은 것이며, 서술시는 자유의지 지향, 현실 비판, 민중지향과 애민 정신 등으로 실현되었다. 이제 이상과 같은 석천시와 그 시학이 탄생하기까지의 사상적 기반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사상 구명에 앞서 우선 석천의 시학이 어떻게 도출된 것이었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시학의 기반이 된 사상 외에 앞선 평자들이 석천시, 또는 석천에 대해 내렸던 평가를 검토함은 매우 좋은 방법이 되리라 믿는

다. 석천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단편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안타깝게도 한국문학사를 기술하는 마당에서 그를 다루어 평가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는 시화류 또는 석천과 교분이 있었던 주변 인물들의 인상비평이 대부분이다.

여기서는 4.1. 시화류 속에서의 평, 4.2. 주변 인물들의 평, 4.3. 석천 자신의 시에 대한 견해를 검토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1. 시화류 속에서의 평

심수경沈守慶(1516-1591)은 「견한잡록遣閑雜錄」에서

참의 임억령의 호는 석천이니 해남인이다. 그의 시는 준수하며 맑고 새로운데 일찍이 세상에 이름이 났었다.⁸⁾

라고 하여 석천시의 특징으로 ‘준일俊逸’과 ‘청신淸新’을 들었다.

신흙申欽(1523-1597)은 「청창연담淸窓軟談」에서

석천 임억령은 시인이다. 또 신기하고 거센 기운이 있어서 우뚝 뛰어나 시속을 따라 오르내리지 않았다. 시는 청련淸蓮을 배워서 대가를 이루었다.⁹⁾

위에서 상촌象村은 석천이 시인임을 강조한 뒤 그의 시는 ‘기위奇偉’하고 ‘기낙락氣落落’하다고 했다.

8) 沈守慶, 『遣閑雜錄』, 林參議億齡號石川海南人爲詩俊逸淸新 早名於世, 조종업 편, 『한국시화총림』(권1), p.642.(아래의 시화류 평에 대한 전거는 여기에 의하며 권수가 다를 때, 권수만 표기한다).

9) 申欽, 『淸窓軟談』, 林石川億齡詩人也且有奇偉氣落落不隨時俯仰詩學淸蓮而家遂甚大, 조종업, 앞의 책(권2), p.393.

허균許筠(1569-1618)도 「성수시화惺叟詩話」에서

임석천은 사람됨이 높고 뛰어났는데 시 역시 그 사람과 같았다. 낙산사에서 읊은 것은 용이 오르고 비가 쏟아지는 형상이다. 그 문장의 기세가 날아 움직이는 듯하여 그 장려함이 기이한 경치와 거의 맞설 만하였고(하략)¹⁰⁾

라고 하여 인품이 ‘고매高邁’한 것처럼 시 또한 ‘고매’하다고 했다. 비단 ‘낙산사’에서 읊은 시뿐만이 아니라, 그의 시에서 느껴지는 것은 ‘문장의 기세가 날아 움직이는 듯 하고 장려하다’는 의미로서 ‘고매’의 의미망을 잡으면 될 것 같다.

남용익南龍翼(1628-1692)은 「호곡시평壺谷詩評」에서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는 삼봉 정도전의 능력함과 (중략) 석천 임억령의 비동함과 (중략) 백주 이명한의 호일함은 모두 제각기 극처에 달했다.¹¹⁾

위에서와 같이 ‘비동飛動’이란 한 단어로 석천시를 평했으며

이제신李濟臣(1536-1584)도 「청강선생시화淸江先生詩話」에서

대저 석천은 기운을 승상하여 고분고분하게 규구規矩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큰 붓을 휘둘러 오언절구를 짓되, 종이의 크고 작음을 가림없이 딱 차게 지으니 이따금 소루한 데가 있는 것이 또한 적지 않다.¹²⁾

10) 許筠, 「惺叟詩話」, 林石川爲人高邁詩亦如其人洛山寺詠龍飛雨降之狀文勢飛動殆與奇觀敵其壯麗, 조종업, 위의 책, p.722.

11) 南龍翼, 「壺谷詩評」, 本朝之犬者如鄭三峯(道傳)之凌厲林石川(億齡)之飛動(明漢)之豪逸各臻其極, 조종업, 앞의 책(권3), pp.173~174.

12) 李濟臣, 「淸江先生詩話」, 大抵石川尙氣不曲循規矩故放大筆作五絕窮紙之多小往往有疏處亦不少, 『국역대동야승』(권14), p.77.

상기尙氣 곧 기운을 숭상하며, 자잘한 법칙을 고분고분하게 따르지 않는다는 불곡순규구不曲循規矩 라는 말과, 소루한 데가 있다는 지적은 석천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으로서는 비교적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큰 붓을 휘둘러 오언절구를 짓되’는 석천이 시 형식에 있어서 오언절구를 선호했던 취향에 대한 언급으로서 형식과 시상과의 관계를 살피는 데 좋은 지침이 된다.

이중열李仲悅(1518-1547)은 「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에서

임억령의 자는 대수요 호는 석천이며 본관은 평택(선산의 잘못-인용자)이다. 을유년 과거에 올라 벼슬이 관찰사에 이르렀다. 학식은 방향이 있고 마음이 강직하며 영기가 발월하고 문장이 웅방하였으며¹³⁾

석천의 학식과 마음 씩씩이 그리고 문장 곧 시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도 ‘문사웅방文詞雄放’이라 하여 문장이 호방함을 지적했다.

임경任璟은 「현호쇄담玄湖瑣談」에서

석천 임억령은 산성에 비가 몰아치는 듯 하고 가지에 바람 부니 매미가 울듯하다.¹⁴⁾

산성에 비를 몰아갈 듯한 힘의 넘침인 취우驟雨, 매미소리와 같이 맑고 시원한 명선鳴蟬의 품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시화류에 나타나고 있는 석천에 대한 평을 개관해 보았는데

13) 李中悅, 「乙巳傳聞錄」, 林億齡字大樹號石川平澤人登乙酉科官至觀察使學識有方處心剛直英氣發越文詞雄放, 『국역대동야승』(권12), <임억령전>.

14) 任璟, 「玄湖瑣談」, 石川林億齡山城驟雨風枝鳴蟬, 이종은·정민공편, 『한국역대시화류편』, 아세아문화사, 1988, p.362.

‘준일청신俊逸清新’(심수경), ‘기위奇偉’(신흠), ‘고매高邁’ 또는 ‘비동飛動’(허균), ‘불곡순규규不曲循規矩’(이제신), ‘문사방웅文詞放雄’(이중열), ‘취우驟雨’, ‘명선鳴蟬’(임경) 등으로 그 비평용어를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데서 알 수 있는 바는 석천의 시는 대체로 기운이 있으며 호방성, 낭만성을 지닌다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음이다. 이는 석천의 시학을 도출해 내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는데, 그가 조선 16세기 곧 도학적 분위기가 고조된 시기를 살았던 시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이러한 사상과 시작태도는 주목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경국제민의 이념을 지닌 사대부로서 현실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의 사상과 방외적 기질은 현실비판적 입장이 되게 하였으며, 그러한 가운데 그의 낭만적 정서는 현실의 진지한 관찰에서 발견된 심각한 문제, 모순, 부조화 등을 낭만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앞선 평자들과 같은 비평이 내려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석천 주변 인물들의 평을 들어보자.

4.2. 주변 인물들의 평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는 <석천제수창>에서

찾아갈 곳 있기에 문밖으로 나왔다가 화양동 계곡으로 잘못 들어 왔구나.
시선詩仙이 이 사이에 살고 있음인가 온 골짜기 가득히 구름이 옹호했네.¹⁵⁾

하서는 석천과 광光·라羅의 문화권에서 활동했던 인물로서 두 사람은 교분이 두터웠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천이 거쳐하고 있는 곳을 신선이 사는 화양동華陽洞이라 하였으며, 그를 이백과 동격의 ‘시선詩仙’으로 칭송하고 있다. 이백의 시는 호방함과 낭만성을 강하게 드러내며 시

15) 河西金麟厚, <石川第酬唱>, 『석천집』, p.322. 出門有所適悟入華陽洞詩仙在此間
一壑雲擁

형식 또한 절구를 즐겨 취했음은 두루 아는 바와 같은데, 석천 역시 5언의 절구형식을 선호했다.

율곡栗谷 이이李珣(1536-1584)는 <차석천견기운>에서

석천은 옛 은사라. 휘두르는 붓 끝에 풍우가 일어난다. 준일俊逸하고 청신清新하다는 말은 지금 공에게 하나로 합치되네. (중략) 동 시대에 태어난 것 얼마나 다행인가 평생에 무릎을 꿇은 적 없었건만 오늘에야 공의 앞에 굽히게 되었네¹⁶⁾

율곡은 석천과 교분이 두터웠던 인물인데, 석천의 시가 ‘준일俊逸’과 ‘청신清新’을 함께 갖춘 시세계를 지녔다 하고서, 평생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지만 석천 앞에서는 저절로 무릎이 꿇어질 정도로 시가 뛰어났다고 했다. 이 준일俊逸과 청신清新은 두보가 이백을 두고 평했던 말인데, 율곡은 석천의 시풍이 이백을 연상케 할 정도로 호방함과 낭만성을 강하게 지녔다고 생각한 것이다.¹⁷⁾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1533-1592)은 <용전운서석천제화응시후>에서

내가 석천을 사랑한 것은 문장이 세속을 뛰어넘었음이라. 시 짓기야 다만 여사로 여겼지만 힘센 필력은 누구도 당하지 못하네¹⁸⁾

제봉은 담양의 성산에서 성산동星山洞 사선四仙으로서 송강松江, 서하당棲霞堂, 석천石川과 함께 풍류를 즐겼던 인물이며 석천의 제자이기도 하다. 또한 석천의 <만사>를 썼는데, 두 사람은 유난히 의기가 투합되었

16) 栗谷李珣, <次石川見寄韻>, 石川古遺士風雨生揮筆俊逸與清新公今合爲一何幸同詩出/平生不屈膝/今日爲公屈, 『석천집』, p.326.

17) 임형택, <석천집 해제>, p.19.

18) 霽峯 高敬命, <用前韻書石川題畫鷹詩後>, 我愛石川翁 文章雄九縣 於詩特餘 事筆力自可見, 『석천집』, pp.334~335.

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문장이 세속을 뛰어넘었기’에 석천을 사랑한다고 했다. 이 말은 세세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던 석천의 시작태도를 말하는지, 세속에 관심이 없는 탈세속적인 장자적 사유를 지녔다는 점을 지적하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어떻게 보든 간에 문장에 힘이 있다는 데에 합치된 평이라 생각된다.

굴옥橋屋 윤광계尹光啓(1559-1619)는 <석천선생집서>에서

근자에 시로써 이름을 날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시격이 분방웅양奔放雄洋하여 장강대하長江大河처럼 주야로 도도히 흘러도 다 하지 않는 분은 오직 석천선생 한 분뿐이다.¹⁹⁾

석천의 외손 김전金墜이 정유병란丁酉兵亂으로 인하여 없어져버린 석천의 유고들을 모아 발간하면서, 굴옥에게 서문을 부탁한 것은 광해군 11년(1619)의 일이다. 윤 굴옥이 어떤 인연으로 석천집 서문을 짓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중요한 것은 석천의 시를 ‘분방웅양奔放雄洋’, ‘장강대하長江大河’라 한 것이다. 한 마디로 힘이 있어서 막힘이 없다는 뜻이다.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은 석천의 <행적기략>에서

선생은 사람됨이 기위奇偉하시고 고결高潔하시어 세속에 따라 구차히 화합하기를 싫어하셨으니 자주 간인奸人들의 미움을 받았다.(중략) 쓰시는 문장은 평방宏放하고 준일俊逸하며 더욱이 시에 뛰어 나시어 붓을 잡으면 일필휘지로 써내시니 한 때의 사람들이 다투어 암송하였다.²⁰⁾

김수항(1629-1689)은 석천의 사람됨이 기위奇偉하고 고결高潔하며 문

19) 橋屋 尹光啓, <石川先生集序>, 近以詩鳴者不一而至於奔放雄洋如長江大河日夜滔滔不渴則惟吾石川先生一人而已, 『석천집』, p.53.

20) 文谷 金壽恒, <行蹟紀略>, 先生爲人奇偉高潔不隨俗禍合以此屢憎奸爲文章宏放俊逸尤長於詩揮灑立就一時人爭傳誦, 『석천집』, p.302.

장은 굉방宏放하면서 준일俊逸하다고 했다. ‘굉방’은 힘이 있으며 막힘이 없다함이고, ‘준일’은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석천의 시는 힘이 있고 막힌 데가 없어서 훌륭하다고 한 것이다.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는 <석천선생묘표>에서

공은 천성이 뜻도 크고 재주 또한 뛰어나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으셨으며 기이한 절의와 거룩한 기상을 지니시어 어릴 적부터 문장에 능했다. 빛나는 벼슬자리에 출입하셨으나 그 지조가 정결하시어 세속 따라 부양하지 않았으며 간사한 무리들이 일을 꾸밈을 보면 불평을 참지 못하였다.(중략) 그의 문장은 웅사雄肆하고 호일豪逸했으니 대저 남화경南華經과 청련靑蓮을 본받았다. 빈번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나 심오한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웠다.²¹⁾

박세채(1631-1695)는 석천의 시가 장자와 이백을 본받았으며, 그 결과 ‘웅사’ ‘호일’하다라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서는 석천을 시선詩仙이라 하여 이백李白과 동등하게 보았는데, 이는 이백 시에서 추구되어진 낭만성·호방성 등을 석천시에서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율곡은 준일俊逸과 청신淸新으로 간명하게 지적하였는데, 이는 두보杜甫가 이백李白의 시에 내렸던 평가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율곡이 석천의 시에서 ‘준일’ ‘청신’함이라 한 것은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 그 것은 시의 형식과 시풍을 두고 한 말일 것인바, 앞서 하서의 경우와 같이 낭만적인 시적 분위기와 호방한 현실 대응 태도 그리고 5언 절구의 경쾌·발랄한 시 형식에 있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제봉霽峯· 굴옥橋屋· 문곡文谷· 현석玄石 등이 각각 내렸던 평 역시 호방함과 낭만성이라는 두 말로 압축되며, 이는 석천의 시에서 풍기는 호방성, 시의 내용이 현실반영을 충실히 지니면서도, 현실

21) 玄石 朴世采, <石川先生墓表>, 公性倣儻不羈有奇節偉氣少以詞藝顯出入華膺顧其操貞潔未嘗隨俗俯仰見奸用事輒發其不平其爲文章雄肆豪逸大低原於南華靑蓮 往往膾炙人口至或有不可窺測者

적 갈등을 해소하고 풀이하려는 과정에서 풍겨주는 낭만적 분위기에 주목한 결과라 여겨진다.

4.3. 석천의 시에 대한 견해

4.3.1. 친불가적親佛家的 세계지향世界志向

석천은 승려와의 교유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거나 규장각본 『석천집』 제 4권에 따르면 그가 승려와 주고받은 시는 192편이나 된다. 석천 불교시의 성격은 산사의 한가함에서 느끼는 낭만적인 정취라든지, 자연승경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가 가져다 준 자연의 신비함 등을 노래한 것, 불승에 대한 호의와 이별에 대한 아쉬움 등을 토로한 것 등인데 대체로 친 불가적인 세계를 지향한 것으로 파악된다.²²⁾

白水忘機客	흰 물가엔 세상을 잊은 나그네요
靑山避世翁	청산에는 세상을 피해온 늙은이로세
莎衣判細雨	莎衣를 입었으니 가는 비에도 드러나고
稻衲信秋風	稻衲을 걸쳤으니 가을 바람에도 끄떡없네.
冠帶形骸異	관 쓰고 띠 둘렀으니 형체가 다르다만
安閑氣味同	편안하고 한가로운 즐거움은 한 가지네.
何時割妻子	어느 때나 처자식을 뚝 떼어 버리고
送老碧雲峰 ²³⁾	구름 봉우리 푸르른 곳에서 말년을 보낼까.

망기객忘機客과 사의莎衣는 석천 자신이요, 청산靑山과 도납稻衲은 중을 비유했다. 사의는 가는 비만 와도 금방 표가 난다고 했고, 도납은 가을 찬바람에도 끄떡없다고 함으로써 둘 사이를 대조시킨 다음, 처자식 뚝 떼어 버리고 푸른 하늘에서 구름과 벗 삼는 중이 되고 싶다고 했다.

22) 줄고, 「석천시에 나타난 사상적 경향」, 『대구어문논총』(제 10집), 대구어문학회, 1992, pp. 372~386.

23) <覺巡上人乞詩>, 『석천집』, 76쪽.

이러한 시는 석천이 불승과의 교유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약 200여 편에 달하는 승려와의 시편을 갖고 있으며, 교유한 승려 또한 60여 명에 이르고 있음에서 볼 때 그의 불가에의 호의적인 취향이라 하겠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를 두고 불교적 세계관에의 몰입이나 침잠이라 하기는 어렵고, 낭만적 정서에 의한 현실대응의 한 방편이라 봐야 타당할 것이다.

老去思鄉曲	늙어가면서 고향생각 간절했는데
相逢萬德僧	만덕사의 승려를 만나니 반갑구나.
長安一夜雨	장안의 하늘엔 밤새도록 내리는 비
湖海十年燈	호해의 생활도 십년이나 되었구나.
蓮老何時採	시들어가는 연잎을 어느 때나 뜯을 거며
舟孤幾日登	외로운 저배를 언제나 타보려나.
雖非由也果	비록 자로처럼 결단성이야 없지만
手有一枝藤 ²⁴⁾	손에는 지팡이 하나 있지 않은가

강진에 있는 만덕사의 중에게 준 시다. 중을 보고 현실에 불만스러운 자아의 발견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고향을 떠나 있었던 지난날이 주마등 같이 스친다. 어느덧 10년의 세월 동안 고향을 돌보지 못했다. 고향의 시들어가는 연잎과 바다에 매여 있는 외로운 배는 시인의 외롭고 쓸쓸한 심사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자아는 눈물짓는다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비록 자로처럼 결단성은 없지만 손에 지팡이 하나 있으니 고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낭만적 결말이다.

爲儒吾已腐	유학자인 나는 썩은 지 오래나
學佛爾眞僧	석가를 배운 그대는 참다운 승려라.
壽與靈龜永	수명은 신령스런 거북이처럼 장수하려는가
形同瘦石稜	모습은 파리한 돌마냥 야위워 있네.
杉松侵破衲	적삼은 소나무에 걸려 찢기어 졌고
山雨冷孤燈	산사에 찬비내리니 등불만 외롭구나.

24) <贈僧>, 『석천집』, p.185.

萬事唯甘睡 만사 중에 곤히 잠자는 것이 제일이러니
 層崖日正昇²⁵⁾ 깎아지른 언덕까지 해가 오르도록.

위유부爲儒腐 - 오곰/ 학불진學佛眞 - 이爾의 대조가 흥미롭다. 불승佛僧을 통해서 자아의 발견이 가능해진다. 부腐와 진眞의 대조에서 대립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현실세계에서 권력에 눈이 먼 속유俗儒들을 썩었다고 했으니 이는 석천의 냉철한 현실비판이며 자신을 포함한 유자들의 헛된 명예욕심을 문제로 인식한 결과의 반영이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심각함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 구의 썩은 선비라는 말보다는 그 다음의 진승眞僧이라는 말과 관련된 진술이 길고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심은 곧 불승의 세계로 집중되면서 현실 문제의 심각성은 차단된다.

이와 같이 석천의 불가적 세계에의 호의적 태도는 자신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대응논리로써 취한 것일 뿐, 그 세계에의 몰입이 아님은 유학자로 대변된 퇴계退溪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퇴계의 경우 「도산전서陶山全書」에 100제題 정도의 증승시贈僧詩가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5제題 정도로, 승려들이 진세塵世의 구속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유행遊行할 수 있음과, 고요한 산사에서 정진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주 내용이라고 한다.²⁶⁾

다시 말해서 불교가 비록 살을 태우고 인륜을 끊는 것은 유교적 사유에 배치되지만, 속세사람들이 구하는 것 곧 사리사욕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요하고 말이 없는 가운데 도리를 터득하려고 애쓰는 점들은 장점으로 본 것이다.

석천이나 퇴계의 경우, 불승이나 그들의 세계관에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그들이 자신의 유가적 세계관을 버리고 불가적 세계관에 몰입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퇴계의 경우 유가적 세계관의 포

25) <贈上禪老衲>, 『석천집』, p.103.

26) 이장우, 「퇴계시와 승려」, 안동한문학회, 『한국한문학과유교문화』, 아세아문화사, 1991, pp.743~753.

용력 안에서, 유가적 사상을 기저로 하여, 불가나 다른 세계관을 관용한 것이었으며, 석천 또한 자신의 현실 문제 해소나 풀이의 방편으로 유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른 세계관에 호의적 관심을 보였다고 보아야 온당할 것이다.

4.3.2. <청송당기>와 청송聽松의 음률 미학

여기서 ‘청송’의 음률 미학이라 함은 자연의 바람 소리 곧 소나무에서 나는 바람소리를 바람 소리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인의 운율 미감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석천이 31세에 지은 <청송당기聽松堂記>는 석천의 천연 天然한 음률에 대한 비중 있는 인식과 시작詩作에서 음악성에 대한 그의 태도를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成仲玉
一隱君子
(중략)

築斗室漢北北山山下
沈灌詩書
追古之周公孔子以自繩
其隙則掘草烹石濟形骸
其視不義之聲功貴利
不翹若腐鼠糞壤
高臥不起十年於茲
(중략)

斷斷然不能定名
白訥齋先生
先生曰
曰聽松宜也

성중옥²⁷⁾은
숨어 지내는 군자이다

한양의 북쪽 북산 아래에 집을 짓고 살면서
시서에 빠져들어
옛 주공과 공자를 추모하여 자신을 다스리고
틈틈이 풀을 캐고 돌을 삶아서 몸을 보전한다
불의의 공명이나 부귀 따위는
썩은 쥐나 오염된 흙보다도 더 싫어한다
높이 누워 나서지 않은 지가 십년이 되었다

이래 저래 이름을 지으려다 정하지 못하고
놀재 선생에게 아뢰자
선생의 말씀이
청송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²⁸⁾

27) 성수침의 자.

28) 율곡이 지은 청송의 행장에는 청송이 작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청송집』, <행장>

林子一日
 與主人話宿
 是夜天朗山寂
 相與曳杖
 相半庭畔
 有風蓬蓬然發乎太空
 刁刁乎披拂山中
 掀柯振葉
 冷冷颯颯
 撼動崖谷
 燁燁海如也
 屑窅雨如也
 雪如也
 瑟如也
 如竽如嘯
 如沸如啣
 涼雨不薄
 映而不飄
 行而不流
 復而不厭
 不期乎意節而音節自諧
 爽骨淒神
 瀏乎其蕩邪穢
 而生沖泊
 噫天地之間
 吹萬不同
 聲音之可樂者不爲不多
 樂其尤也
 軒轅氏之咸池
 有虞之韶
 又樂之大
 舞魚龍儀鳳凰
 感物如此
 在人可知

林子(석천-인용자)가 하루는
 주인으로 더불어 담화를 하면서 목계 되었는데
 이날 밤은 하늘이 명랑하고 밤이 고요했다.
 서로 지팡이를 끌고
 뜰가를 맴도는데
 바람이 하늘에서 횡하고 일어나
 온 산중을 솔솔 스쳐감에
 가지가 흔들리고 잎사귀가 떨리어
 싸늘하고 쌀쌀하게
 골짜기를 뒤흔드니
 그 빛남은 바다와도 같고
 바스락거리고 어둑함이 비오는 듯하고
 눈발소리 같기도 하고
 비파소리 같기도 하고
 피리소리 같기도 하고 통소소리 같기도 하며
 물이 끓는 듯 벌레가 울듯하여
 시원하면서도 얇은 모습이 아니요
 붙어대도 날아가지 않으며
 가는 듯 하면서도 흘러가지 않고
 중복되어도 싫지 않으며
 음절을 맞추려 할 것도 없이 음절이 저절로 맞아
 뼈까지 상쾌하게 하고 또 심신을 스산하게 한다.
 맑은 소리는 마음의 사예邪穢를 씻어주고
 화평하고 담박한 기운이 생기게도 한다.
 아! 천지의 사이에
 소리를 내는 것이 만 가지로 다르며
 그 중에서 聲音의 즐길만한 것이 적지 않지만
 이(바람소리-인용자)것의 즐거움이 최고이다.
 軒轅氏(황제)의 음악 咸池나
 有虞(순임금)의韶는
 악 중에서도 큰 것이다.
 그것이 어룡을 춤추게 하고 봉황이 모습을 드러내게 하였으니
 (미물도 그렇게-인용자) 감동 시켰거늘
 사람은 어떠했는지 알만하도다.

比之空山古木澹澹涼涼 無倫無節者 爲如何 而不待論說 而焯焯校然而然 而自本自根論之 則竭耳目勞也 假金石煩也 待彈擊泥也 美則美矣 此豈足與論自然哉 周之言曰 鑠絕箏瑟 塞鼓曠之耳 天下含其聰 非惡夫樂 謂其非自然也 灑大羹具五味 豈若存其淡 毀白玉爲珪璋 豈若存其璞 一犯手做 喪其天久矣 夫太虛之中 陰陽之薄激 風霆之震競 草木之叱呼 鳥獸之叫吟 何莫非鈞天廣樂 世無有南郭大耳 故不之知耳 捨其此而必曰比竹 比竹不亦聾之甚耶	空山の 古木들이 바스락 바스락 소리만 내게 할 뿐 아무런 가락도 박자도 없는 소리만 내는 데에 비한다면 어떻게겠는가.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분명하고 뚜렷한 것이다. 하지만 근본부터 따져본다면 귀와 눈의 힘을 다 써서 만든 음악은 수고로운 것이요 金石을 빌린 음악은 번거로운 것이요, 통기고 치는 음악은 얽매여 있는 것이다. 아름답기야 하지만 어찌 자연과 비교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莊周가 말하기를 “피리와 비파를 녹여 끊어 버리고 瞽曠 ²⁹⁾ 의 귀를 틀어막아 버려야 천하의 사람이 귀가 밝아질 것이다.”하였으니 이는 음악을 미워함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大羹에 五味로 간을 맞추는 것이 어찌 그 싱거운 것을 그대로 둔 것만 같으며, 白玉을 헐어서 규장珪璋을 만드는 것이 어찌 그 박璞대로 놓아둔 것만 하겠는가. 한번 손을 대어 만들다 보니 그 天然을 잃어버리게 된 지가 오래이다. 무릇 太空의 가운데 음양이 서로 부딪쳐 바람과 우뢰가 진동을 하고 풀과 나무가 웅웅 거리고 새와 짐승이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 天然을 나타내는 큰 음악이 아닌 것이 있는가. 세상에 南郭 ³⁰⁾ 같은 큰 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뿐이다. 이것을 제쳐두고 比竹을 찾으니 비죽이 사람을 온통 귀머거리로 만드는 것 아닌가.
--	--

29) 진(晉)의 악사(樂師)인 사광(師曠).

嗟呼仲玉君	아, 중옥군은
於是乎拔乎俗遠	속인에서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我亦有一畝地	나도 일 묘나 되는 땅이
在南海濱頭輪山之下	해남의 언저리 두륜산 아래서
(중략)	
濯於是老於是	몸 씻고 늙으려다.
期在月矣	이달 안으로 기일까지 잡았으며
志已果矣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
(중략)	
是歲嘉靖五年秋也 ³¹⁾	이 해는 가정 5년(1526:석천 31세) 가을이었다.

위의 <청송당기>에서 본 바와 같이 석천은 젊은 나이(1526년丙戌 31세)부터 자연스러움 곧 천연天然함을 시와 음악의 최고 경지로 보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람이 봉봉蓬蓬하게 태공太空에서 일어나 산중을 솔솔 스치면서 내는 소리, 인위가 가미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가 유로流露된 소리를 최고의 음률로 여겼다. 이는 『장자』의 천뢰天籟를 말한 듯하지만 사실은 인위적 꾸밈이 없으며, 자잘한 기교가 배제된 각 사물의 타고난 성정의 자연스러운 유로를 중시한다는 『시경』의 연비려천鳶飛戾天 어약우연魚躍于淵³²⁾과 같은 말이다. 다름 아닌 본연의 위치에서 내는 소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니, 바로 『중용』의 소기위이행素其位而行³³⁾과 그대로 통한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바람이 가지, 잎사귀, 등을 스치면서 나는 소리는 비가 오듯, 눈발이 내리듯, 비파, 피리, 통소 등이 저절로 연주되는 듯, 물이 끓는 듯, 벌레가 우는듯하여, 시원하면서도 얇은 모습이 아니며, 붙어대도 날아가지도 않고, 넓으면서도 퍼지지 않으며, 가는 듯 하면서도 흘러가지 않고, 중복되어도 싫지 않으니, 제대로 격이 맞아 뼈까지

30) 『莊子』에 나오는 천뢰(天籟)를 말한 사람.

31) <聽松堂記>, 『聽松集』(卷三), 『한국문집총간』(제26권), 172쪽.

32) 『시경』, <대아>, 한록지편

33) 『중용』, 제 14장

상쾌하고, 심신을 맑게 한다는 성률聲律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지닌 인물이 바로 석천이었다.

이와 같이 맑은 소리 곧 천연天然스러운 소리는 황제의 음악인 함지咸池나 순 임금의 음악인 소韶보다 나은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음악의 수고롭게 한 것과, 금석金石 음악의 번거롭게 한 것, 통기고 치는 음악의 얽매는 것 등보다 훨씬 아름다우니 그 이유는 자연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하늘 가운데서 음양이 부딪혀 바람과 우뢰가 진동하고, 풀과 나무가 뒹뒹거리고, 새와 짐승이 소리 지르고 하는 것 곧 천연天然을 나타내는 것이 큰 음악 이른바 균천광악鈞天廣樂이라 했다. 균천鈞天은 천제의 거소이며, 거기서 나는 음악 소리가 광악이니 균천광악은 다른 아닌 천상의 위대한 음악을 일컫는다.

이와 같이 천연天然의 음악관은 『장자』 <제물편>의 유가적 수용이 아닐 수 없다. <제물편>에서 장자는 남곽자기와 그의 제자 안성자유의 대화를 통하여 인뢰人籟, 지뢰地籟, 천뢰天籟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뢰는 통소 같은 것이 내는 소리를, 지뢰는 모든 구멍이 내는 소리 곧 바람소리를 뜻한다. 천뢰는 “대체로 그 붙어대는 것이 만 가지로 같지 않지만, 그것들을 제멋대로 붙어내게 하는 것”이라 하여 모두 사물이 다 제멋대로 내는 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인뢰를 인뢰로써 듣고, 지뢰를 지뢰로써 듣는 것이 곧 천뢰라는 것이다. 이른바 만뢰萬籟(모든 소리)의 울림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원리에 의하여 울리는 여러 소리로서, 그 배후에서 울리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 시켜서 내는 소리가 아니다. 따라서 천뢰는 온갖 사물들의 자기 자신에 의해서 나는 온갖 소리를 소리 그 자체대로 듣는 것이라는 말이다.³⁴⁾ 이런 장주의 음악관은 석천의 문학관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되, 시에서 자잘한 기교로써 꾸며내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런 성정性情의 유로流露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소기위이행素其位而

34) 이석호 역, 『노자·장자』, 삼성출판사, pp. 196~197.

行'의 태도가 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주의 음악관은 유가적 음악관과 융합되어 아름다운 자연 승경에 대한 관조와 감상의 서정시를 이루는 요소로 작용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것만의 독자적인 시상이나 시 세계를 드러나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석천사에서 성정의 자유로운 유로가 보이고, 평담하며 자율의 경지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혹은 불평즉명不平則鳴처럼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장자식의 풍자가 느껴진다는 것은 감상의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4.3.3. <식영정기>와 『시경』 및 식영息影의 정신

息影亭記	식영정 ³⁵⁾ 의 기문
金君剛叔吾友也	김군 강숙은 나의 친구이다.
乃於蒼溪之上寒松之下	맑은 시내 위 푸른 솔숲 아래
得一麓構小亭	한 기슭을 얻어 조그마한 정자를 지어
柱其隅空其中	네 귀에 기둥을 세우고 가운데를 비우고
苦以白茅翼以涼	담뽕 풀로 덮어 대나무 자리로 날개를 달았으니,
望之如羽蓋畫舫	바라보면 마치 새 깃으로 뚜껑을 한 놀잇배 ³⁶⁾ 와 같다.
以爲吾休息之所	나의 휴식처로 삼으라면서
請名於先生先生曰	정자의 이름 지어줄 것을 청함에 내 이르기를,
汝聞莊氏之言乎	그대는 장주莊周의 말을 들었는가?
曰昔有畏影者	장주 이르되 옛날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다.
走日下其走愈急	그는 햇빛 아래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빠를수록
而影終不息	그림자는 끝까지 쉬지 않고 따라 왔다.
及就樹陰下影忽不見	나무 그림자 아래에 들었더니 그림자는 문득 보이지 않았다.

35) 식영정息影亭: 담양군 남면 지곡리芝谷里的 별피(星山)에 있는 정자. 김성원金成遠이 장인인 임억령을 위해 지어 주었다고 전한다. 이곳에서 성산사선星山四仙은 <식영정이십영> 등 많은 시문을 수창 하였으며, 정철은 전원 가사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성산별곡>을 제작하였다.

36) 화방畫舫: 용이나 봉황 따위의 그림으로 꾸미고 그림을 그리어 곱게 단청丹靑을 한 놀잇배.

(중략)

皆造化兒爐鍾中事也

이는 모두 조물주의 노추³⁷⁾에 매달린 일이니라.

(중략)

剛叔曰

강숙^{剛叔}이 이르기를,

影則固不能自爲

“그림자는 진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若先生屈伸

선생께서 굴신하는 것은

由我非世之棄

나를 말미암은 것이지 세상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遭聖明之時

성명^{聖明}한 시대를 만나서도

潛光晦迹無乃果乎

빛을 감추고 자취를 숨김은 곧 지나친 일이 아니겠습니까?”

先生應之曰

선생은 대답하여 이르되

乘流則行得坎則止

“승류^{乘流}에는 가고, 구덩이에 이르면 멈추게 되니,

行止非人所能

가고 멈춤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吾之入林天也

내가 임천^{林泉}에 드는 것은 천명^{天命}이요,

非徒息影

한갓 그림자를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吾冷然御風

내가 냉연^{冷然}하게 바람을 타고

與造物爲徒

조물주와 함께 짝이 되어

遊於大荒之野滅沒倒影

멀리 떨어진 들³⁸⁾에 노닐게 되면 그림자³⁹⁾도 없어지고,

人不得望而指之

남들은 바라보고 그것을 지목할 수도 없으리니,

名以息影不亦可乎

이름 하여 식영^{息影}이라 함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剛叔曰今始知先生之志

강숙이 이르기를 “이제 비로소 선생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請書其言以爲誌

청컨대 그말을 써서 기록을 삼겠습니다”고 하였다.

癸亥七月日荷衣道人

계해⁴⁰⁾ 칠월 하의도인⁴¹⁾이 쓰다.

석천의 담양과 인연은 1557(62세)년 그가 담양부사로 내려오면서 본격화 되는데 1563(68세)에 식영정^{息影亭}이 완성됨으로써 석천은 계산^{計善}풍류의 진경^{眞景}에 침잠하게 된다. 그의 서정시가 지니는 평담과 자술의 미학은 식영정 생활에서 완성된다고 보여지며, 그렇게 창출된 의경은 다른 아닌 그의 시학에서 기인함은 두말을 요하지 않는다.

37) 노추^{爐鍾}: 쇠붙이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에 있는 화로와 망치.38) 대황^{大荒}: 매우 멀리 떨어진 곳.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39) 도영^{倒影}: 거꾸로 비치는 그림자.40) 계해^{癸亥}: 조선조 명종^{明宗} 18년. 1563년.41) 하의도인^{荷衣道人}: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이 스스로 일컫은 자호^{自號}.

스승인 늘재訥齋으로부터 소개 받아 터득하게 된 『장자莊子』의 외영오적畏影惡跡⁴²⁾ 우화는 석천의 유가적 사상 속에 녹아들어 그의 시학의 형성에 기여한다. 장주는 <어부>에서 제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제 발자국을 싫어해서(人有畏影惡跡) 그것들을 버리려고 달아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의 식영息影은 바로 거기에서 가져온 말이다.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그림자가 없어지고, 조용히 쉬고 있으면 그림자도 멈춤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중용』에서 말한 ‘소기위이행素其位而行’하지 않고 천하를 주유하는 공자를 비꼬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다시 말해서 공자가 인의仁義의 이해를 살피고, 동이同異의 차이를 관찰하며, 동정動靜의 변화를 보고, 수수授受의 정도를 적당하게 하며, 호오好惡의 감정을 다스리고, 희노喜怒의 도를 중화시키는 사람이지만, 그래야만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그리하려고 하므로, 그래서 화를 면치 못하기 어렵다는 것이 장주의 말이다.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삼가 자신의 몸을 수양하고, 자기의 진성眞性を 지키며, 외물을 남에게 돌려주면, 엽매임이 없어질 것이므로 화도 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부는 공자가 수양을 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는 것에 대하여, 이는 이치에 벗어난 것이라는 충고를 했다.⁴³⁾

이런 태도는 석천의 시학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장行藏을 알게 해주는 단서인 동시에, 왜 동생 백령에게 을사사화 참여를 반대하고 자신이 담양으로 귀거래 했는지를 설명해주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여기서 장주가 말하는 진성眞性は 하늘에서 받은 것으로, 성인은 하늘을 본받아 진성을 잘 간직하고 세속적인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장주의 진성은 다름 아닌 정성의 극치요, 정精하고 성誠한 것으로, 이른바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원천적 내성이다. 달리 내성內省에 의해서 획득된 경지로서 곧 온전한 수기修己의 경지이다. 이때 성誠은 『중용中庸』

42) 『장자』, <잡편>, (31), 漁父

43) 王叔岷, 『莊子校詮』, 下, 中華書局, 2007, pp.1237~1240.

의 성誠과 통하는데 이는 간良과도 통하며, 정지가 아니라 운동이며, 창조
의 세계를 뜻한다.⁴⁴⁾ 석천의 식영으로 대변되는 정신은 현실도피 또는 장
자적 세계에의 몰입이 아니라, 계산溪山의 자연 승경 그 속에서 소기위이
행素其位而行的 처지대로 행장行藏하여 자연스러움에 어긋나지 않는 창조
적 의경의 세계를 말한다.

4.3.4. 송천과의 시관 논쟁

석천은 송천과 시에 대해 논쟁을 벌였는데 <조양수재調梁秀才>에서는
석천의 시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양수재調梁秀才>는 전체 76구의 5
언으로 된 장편 고시체이다. 이는 양응정梁應鼎(1519-1581)과의 시재詩
才를 겨뤘던 내용인데 석천의 양응정에 대한 품평과 시에 대한 생각을 드
러내고 있는 좋은 자료이다.

(전략)

吾觀古之人	내가 보건대 옛날 사람들은
爲詩險語不	시를 지움에 험한 말 쓰지 않았네.
周詩三百篇	『시경』 삼백 편의 시는
平淡自中律	평담하면서도 스스로 제격이네.
何嘗有來歷	어찌 일찍이 시작에 내력이 있겠는가
皆自性情出	모두가 성정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關關雎鳩語	<주남> 편의 시들은
令人詠嘆溢	저절로 탄식하게 한다.
咆哮非不壯	포효한 것이 씩씩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無乃本性失	이것은 곧 본성을 잃은 것이다.
怪兮玉川子	괴이하다. 옥천자 노동盧 ⁴⁵⁾ 이여
險兮李長吉	거칠다 장길 이하李 ⁴⁶⁾ 여

44) 줄고, 「석천 임역령시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청
구논문, 1994, pp.44~51.

45) 당나라 시인(795~835).

46) 당나라 시인(790~817).

義山太隱僻	의산 이상은李商隱 ⁴⁷⁾ 은 너무 은벽하고
豫章太古實	예장 황산곡黃山谷 ⁴⁸⁾ 은 너무 고실하다.
荊璞自淬溫	형박은 저절로 쉬온淬溫한대
昧子妄劖劖	어리석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다듬는구나.
夫子今復生	공자께서 다시 태어나신다면
吾知必刪劖	저런 시들은 깎아서 버릴 것이다.
由勇及點狂	자로子路 ⁴⁹⁾ 의 용맹과 증점曾點 ⁵⁰⁾ 의 광함도
不如顏瓢壹	안자顏子 ⁵⁰⁾ 의 단표簞瓢하나만 같지 못하다.
無聲又無臭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은
太空恒靜密	하늘이 늘 고요하고 정밀해서이다.
門庭自陶柳	도연명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느니
然後行不跌	그런 뒤라야 잃음이 없을 것이다.

위에 인용한 것은 시의 일부인데⁵¹⁾ 『시경』의 시 삼백 편은 ‘평담平淡’하면서도 저절로 체격(自律)을 이루었는데, 그 이유는 성정性情에서 나온 그대로 썼기 때문이라 하여 시에서 ‘자연스러운 성정의 유로’를 높이 사고 있다. 이는 석천의 시관은 그 핵심 사상이 유학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거니와, 유학 경전의 하나인 『시경』을 내세우면서 평담하고 자율한 시 곧 자연스럽게 성정이 유로된 <주남> 편의 시가 으뜸이라는 말로써 자신의 시관을 적확하게 드러내었다.

결국 시에서는 꾸밈이 없는 ‘성정의 자연스런 유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 시라야 <주남> 편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이기지 못하여 길이 탄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용문 외에도 ‘밝은 달이 누각에 비친다.’, ‘못에는 봄풀이 돌아난다.’, ‘성근 비는 오동나무에 떨어진다.’ 등은 단칠丹漆을 한 것이 아니어서, 곧 자연스러워서 좋다고 했다.⁵²⁾

47) 당나라 시인(813~858).

48) 송나라 시인 본명은 정견(1045~1105), 산곡은 호이다.

49) 자로, 증점 모두 공자 제자.

50) 공자 제자.

51) <調梁秀才>, 『석천집』, p.148.

52) 『석천집』, p. 148.

그러므로 포효咆哮한 것, 곧 시어가 험險한 것은 본성을 잃은 것이어서 좋지 않다고 했다. 예컨대, 노동盧仝은 시어가 괴怪하고, 이하李賀는 험險하며, 이상은李商隱은 너무 은벽隱僻하고, 황산곡黃山谷은 너무 고실古實하니 만약 공자가 다시 태어나시어 『시경』을 손보신다면 그 속에다 이들의 시는 넣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석천은 평담平淡하고 자율自律한 시를 높이 샀다. 이는 앞서 <청송당기>나 <식영정기>에서도 일맥으로 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로子路같이 용맹스런 모습의 시나, 증점曾點이의 씩씩한 기상의 시보다는, 안자顔子와 같은 평범하고 담박한, 삶의 모습 그대로의 시, 곧 단표單瓢 같은 시를 추구했다.

양송천梁松川의 시가 너무 험險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알려주면서 도연명陶淵明(365~427)으로부터 시작을 배운다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면 도연명의 어떤 점을 본받으라고 한 것인가? 그것은 소식蘇軾(1039~1112)이 도연명을 평한 바 다음과 같은 점일 것이다.

도연명은 벼슬하고 싶으면 나가서 했고 그렇다고 꺼리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은퇴하고 싶으면 은퇴했으며 그렇다고 고결하다고 자처하지도 않았었다.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문을 두들기고 밥을 찾기도 했으며, 살림이 넉넉하면 닭이나 술을 빚어놓고 손님을 청해 대접도 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의 태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無爲自然에 귀일한 그 참이라 하겠다.⁵³⁾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위자연無爲自然에 귀일한 참의 실천 곧 솔직하고, 담담한 태도, 허구와 가식을 털어버린 진眞의 세계추구, 이것이 도연명의 참 모습이라 하겠는데, 석천도 그의 시에서 기궤剖劓을 힘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성정性情의 자유로운 유로를 귀히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53) 장기근, 『도연명』, 태종출판사, 1975, 42~43쪽. 淵明欲仕則仕不以求之爲嫌欲隱則隱不以去之爲高飢則敲門而求食飽則黍以迎客古今賢之貴其眞也.

4.3.5. <희임대수견방론시喜林大樹見訪論詩>의 홍종洪鐘과 대방大方 시관

석천은 퇴계와도 시에 대해 논쟁을 벌였거니와 이 자리에서는 석천과 퇴계와의 시에 관해 논의한 사실을 통하여 석천의 사상적 배경과 그 것이 시작태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더욱 가깝게 다가서기로 한다. 이황(1501~1570)의 시관을 보면 그는 어쩔 수 없는 학자라는 것을 새삼 알게 한다. 그는 시를 교화의 수단으로 생각했는바, 다름 아닌 시를 통하여 교화의 큰 중을 울리고자 했는데 홍종洪鐘이 그것이다. <희임대수견방론시>⁵⁴⁾는 퇴계의 문하인 황준량(1517~1563)⁵⁵⁾의 ‘금계별당 8영’ 중 하나로 퇴계와 석천이 함께 지은 것이다. 아래 글은 석천과 퇴계의 시관을 이해하는데 요긴한 자료라 생각되기에 전문을 소개한다.

玄冬逼歲除 急景馳西沒 愁人臥窮巷 寂寞抱沈疾 舊來人不來 門前雀羅設 寧知打寒扉 忽枉長者轍 (중략) 學詩追甫白 學道慕莊列 往往誦傑句 掀簸困造物 (중략) 吾詩尙豪宕 何用巧剗劒	겨울철 선달그믐 무렵이면 짧은 해는 급히 서녘으로 기운다 근심 가득한 채 시골에 누웠노라니 하릴없이 병색만 깊어간다 옛 오던 이의 발길도 끊기어 문 앞엔 참새가 그물을 칠만하네 어찌 알았으랴, 찬 사립문을 제치고 갑자기 장자 ⁵⁶⁾ 께서 찾아주실 줄을 시는 두보와 이백을 배웠고 도는 장자와 열자를 터득했다네 자꾸 뛰어난 시구를 외우는데 조물주도 깜짝 놀랄만했다네 “나의 시는 호탕함을 승상하노니 어찌 교묘한 기교를 사용하겠는가.
--	--

54) 계명한문학회연구회편, 『퇴계선생문집별집』(9), pp.4208~4210.

55) 黃俊良, 본관 평해, 호는 錦溪, 『금계집』이 있다

56) 임억령을 지칭함.

吾行蹈大方 不必拘小節 詞氣甚激昂 河漢瀉頰舌 我初驚且嘆 中頗疑以詰 自非聖於詩 法度安可輟 寧聞大賢人 不用規矩密 曷不少低頭 加工鍊與律 比如撞洪鐘 寸筵豈能發 長者若不聞 意象更超越 (중략) 容我妄自述 敢不樂從之 斐然呈八絕	나의 행함은 大方을 밟는 것이니 꼭 작은 절차에 얽매일 수 없노라.” 말의 기운이 심히 격앙된 것이 황하와 한수의 물이 입속에서 쏟아진 듯. 내가 처음에는 놀라고 감탄했으나 중간에 껍이나 의심 내어 물었다. 스스로 시가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시 짓는 법도를 어찌 무시할 수 있겠는가. 어찌 들었는가 큰 어진이가 법도를 세밀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어이 조금의 머리를 숙여가지고 연마하고 법도 지키는 공부하지 않는가. 비유컨대 큰 종을 치고자 한다면 작은 막대기로 어찌 가능할 것인가. 장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뜻과 기상이 되레 드높았네. 나의 재주 없음을 용납해주었네 감히 즐겨 좇지 않겠는가 비연하게 8절을 지어 바치노라 <黃上舍堂詠八絕。本爲林公勸予同作>
---	---

위의 시에서 논지와 연관된 주요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學詩追甫白 學道慕莊列 吾詩尚豪宕 何用巧剗鬪 吾行蹈大方 不必拘小節 詞氣甚激昂 河漢瀉頰舌 我初驚且嘆 中頗疑以詰	시는 두보와 이백을 배웠고 도는 장자와 열자를 터득했다네 나의 시는 호탕함을 숭상하노니 어찌 교묘한 기교를 사용하겠는가. 나의 행함은 大方을 밟는 것이니 꼭 작은 절차에 얽매일 수 없노라. 말의 기운이 심히 격앙된 것이 황하와 한수의 물이 입속에서 쏟아진 듯. 내가 처음에는 놀라고 감탄했으나 중간에 껍이나 의심 내어 물었다.
--	---

自非聖於詩	스스로 시가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法度安可輟	시 짓는 법도를 어찌 무시할 수 있겠는가.
寧聞大賢人	어찌 들었는가 큰 어진이
不用規矩密	법도를 세밀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曷不少低頭	어이 조금의 머리를 숙여가지고
加工鍊與律	연마하고 법도 지키는 공부를 하지 않는가.
比如撞洪鐘	비유컨대 큰 종을 치고자 한다면
寸筵豈能發	작은 막대기로 어찌 가능할 것인가.
長者若不聞	장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意象更超越	뜻과 기상이 되레 드높았네.

위의 오언 고시는 전체 64행의 장편인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곳은 다음이다.

시는 두보와 이백을 배웠고
 도는 장자와 열자를 터득했다네
 나의 시는 호탕豪宕함을 숭상하노니
 어찌 교묘한 기교를 사용하겠는가
 나의 행함은 大方을 밟는 것이니
 꼭 작은 절차에 얽매일 수 없노라.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황하와 한수의 물이 팔팔 흐르듯 격앙된 어조’로 주장한다. 곧 시에 대해 자신 있는 주장이다.

위의 부분은 석천의 시관이다.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ㄱ) 시에서 호탕함을 숭상한다.
- ㄴ) 교묘한 기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ㄷ) 행하는 바는 대방大方을 밟는 것이다.
- ㄹ) 작은 절차에 얽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석천의 시관은 도학자 퇴계를 당황케 한다.⁵⁷⁾ 석천을 맞이

57) 줄고, 「석천 임역령시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청

하는 접빈객은 어떤 사람인가? 순수한 사람과 도학자이다. 따라서 그는 시를 존중하면서도 다시 말해서 시의 감흥은 금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감흥이 생기는 방법은 늘 문제 삼았다.⁵⁸⁾ 시에서의 감흥이란,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의 모습을 그리면서 자연이 있게 되는 도道の 원두源頭를 생각하게 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연을 노래하는 시는 도의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결신난륜潔身亂倫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현의 말씀에 따라 도의의 근본에 이르러서 마음을 바로 잡자는 것이며, 도의의 근본은 세상의 기氣와는 하등의 관계없이 적연부동寂然不動한 것인데 시는 적연부동한 경지를 이상으로 삼는다.⁵⁹⁾

이와 같이 시의 이상, 곧 자연을 노래한 시가 도의의 근본을 찾는데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을 지닌 접빈객의 입장에서 볼 때 석천의 시관은 당황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는 내가 감탄했으나
 중간에 껍이나 의심 내어 물었다.
 스스로 시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시 짓는 법도를 어찌 무시할 수 있겠는가.
 어찌 들었는가? 큰 어진이가 법도를 세밀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어찌 조금의 머리를 숙여가지고 연마하여
 법도 지키는 공부를 하지 않는가.
 비유컨대 큰 종을 치고자 한다면
 작은 막대기로 어찌 가능할 것인가.

위의 부분을 요약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a) 시에의 성인이라야만 시 짓는 법도를 무시할 수 있다.

구논문, 1994, pp.63~67.

58) 조동일, 「이조사대부와 그 문학」,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소, 『대동문화연구』 (제 13집), p.114.

59) 조동일, 위의 글, 같은 곳.

- (b) 어진 사람도 시 짓는 법도를 세밀하게 지켜야 한다.
 (c) 홍종洪鐘을 치려면 작은 막대기로는 곤란하다.

위와 같은 퇴계의 시관은 석천의 시관 곧 ‘시는 호탕해야 한다’, ‘작은 기교는 무시되어도 좋다’, ‘행하는 바는 대방을 밟는 것이다.’ ‘작은 절차에 얽매일 수 없다’ 등과는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석천은 시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을 공히 중시한 셈인데, 시 형식적인 면에서의 호탕함을 숭상한 태도는 이백의 시풍과 장자의 식영에서 기인된 것이라 판단되며, 내용 면에서의 ‘대방大方’은 노자 사상의 유학자적 수용이라 하겠다.⁶⁰⁾

대방大方은 다름 아닌 무우無隅로서 커다란 방형은 모난 구석(稜角)이 없는 것을 이른다. 대방무우大方無隅는 대기만성大器晚成, 대음희성大音希聲, 대상무형大象無形 등과 같은 류의 숨어 있는 도로써 쉽사리 이름 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학자인 석천에게 있어서 대방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유가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할 의무를 지닌 사대부였다는 점에서 볼 때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이념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현실 세계를 비판, 고발하고 풍자하며 지적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재조在朝의 몸이 되어 그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비판과 고발의 정신은 바로 『중용』의 ‘소기위이행’과 『노자』의 ‘대방’이 사상적 결합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5.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석천의 사상과 그를 바탕으로 한 시창작원리요, 시창작정신인 그의 시학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석천은 사대부이며 그의 이념은 유학이요, 그 모토母土는 경국제민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현실은 삶의 바탕이요, 삶의 현장이다.

60) 『노자』, 41장 「同異」

그의 모든 행위나 사고는 현실을 떠난 가정 하에서는 무의미한 것임은 두 말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대부는 현실적 사고와 이 순간 현실을 중요시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대부들의 세계관이 빚어 낸 삶의 양식이기도 하였다.

유학적 이데올로기를 지닌 사람의 입장이 되어, 사화기士禍期라는 격동의 시간을 살았으며, 그러한 와중에서 신음했던 백성들의 피폐한 모습을 가까이서 이문목도耳聞目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처지 또한 불우했던 인물이 바로 석천이다. 타고난 성품의 소탈함과 검속을 싫어하는 성미, 거기에 이른 시기부터 접하여 체득한 유가의 사상, 그리고 노자와 장자의 사상적 영향, 불승들과의 활발한 교유 등은 그가 호남사람의 문화적 중심지인 光光·라羅지역 당대 사람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독특한 시학을 형성하는 데에 일정량 작용했을 것이다.

스승인 늘재와 호남사람의 당대적 분위기에서 체득한 불합리한 현실적 세계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석천이란 시인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외적 기질의 소유자로 만들었을 것이다. 석천의 시 창작 정신은 현실에 대한 관심과 애정 곧 소기위이행素其位而行이라는 「중용」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현실 풀이의 한 방편이나 수단임을 간과해서는 그의 시 이해에 온당하게 다가서지 못함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따라서 그가 <면양정삼십영><추촌잡제>(22수)<차화숙배율>(40운)<고기가><송대장군가><우죽부> 등 주로 연작시連作詩나 배율排律, 가체歌體 또는 부체賦體, 고체시古體詩 등 비교적 장편의 서술시적 형식을 통하여선 자연에의 침잠에 따른 관조와 완상의 흥취를 노래하거나 현실의 갈등이나 불합리 등을 해소 또는 풀이하려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현실의 모든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임무를 띤 현실적 사고의 소유자인 사대부들은, 그가 처한 위치에서 각기 나름의 현실대응 논리를 지니기 마련이었는데, 석천은 그 나름 유학적 세계에 기반 한 채, 부가적으로 친 노·장적, 불가적 세계관을 받아들여 그의 사상적 깊이를 더함으로써 그의 시 세계를 한층 다양하게 개척하였다.

석천은 어디까지나 유학의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람이었다. 석천은 독

서를 통하여 도연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용』 정신의 체득이 그것이다. 도연명은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목도目睹하고 관리의 부패와 사회의 험난함을 깊이 느껴 <귀거래혜사歸去來兮辭>를 읊고 독선기신獨善其身の 유가사상을 귀은歸隱으로 실천했다. 이러한 도연명의 자세는 『중용』 제 14장에서 말한 군자君子는 그가 처한 바에서 행동을 할 뿐이라는 ‘소기위이행素其位而行’이요, 그 외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불원호기외不願乎其外’가 그것이다. 따라서 군자는 어디를 가든 자득함이 없을 수 없다는 ‘무입이부자득언無入而不自得焉’으로 이어져 전원으로의 귀은歸隱 실천 역시 자연스러운 처신이였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처하든 마땅히 처한 곳에서 낙도樂道하는 이른바, 『시경』의 연비려천鳶飛戾天 어약우연魚躍于淵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세계를 갈망하고 그를 실천했던 인물이 곧 도연명이었는데, 연명에게 영향 받은 석천은 양응정과와 시에 관한 논쟁 <조양수재調梁秀才>에서 성정의 자유로운 유로와 『시경』 <주남>의 시를 높게 평가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석천의 안목은 육봉 박우의 묘갈명에서 덕행과 학문을 착실히 다지는 것 곧 경국제민 하기 위한 수기修己의 공부를 마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문예를 바람직하게 여기게 되었으며, 지나치게 꾸미거나 수식하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그 실속이 허하게 되는 문예를 말단으로 보는 태도로 이어진다.

석천이 당대현실에 충실하면서 유자로서의 이념을 실행에 옮기려했을 때 혹은 조야朝野의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정치현실을 객관적인 자세에서 바라다보았을 때,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 컸으며 따라서 발생되는 갈등 또한 심각했었다. 과란의 정치 소용돌이와 그에 따라 부침하는 지우知友들을 통하여 때론 그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서 체득된 현실극복의 시적 대응은 다름 아닌 귀거래 정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석천의 시에서 귀거래는 그 세계의 몰입 곧 현실부정이나 망세忘世의 은둔이 아니라 ‘무입이부자득언’의 실천인 은구적隱求的인 것이었다. 이런 ‘무입이부자득언’은 불가의 수처작주隨處作主와도 일맥으로 상통하는 것인데 사람

은 어디든 그 처한 바에서 자신의 책무와 소명을 다 하는 자세이다.

석천이 지녔던 현실대응 논리는 다름 아닌, 현실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찰하려는 객관적 인식능력, 곧 장자식으로 말하면, 만뢰萬籟의 인정과 같은 것이었다. 이는 바람 소리를 바람 소리로 듣는 <청송당기>의 청송聽松의 태도가 그것인데, 이른바 천연함을 중시한 태도와 같다. 천연天然함을 시와 음악의 최고 경지로 보았던 석천, 그는 바람이 봉봉蓬蓬하게 태공太空에서 일어나 산중을 솔솔 스치면서 내는 소리, 인위가 가미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가 유로流露된 소리를 최고의 음률로 여겼다. 이는 『장자』의 천뢰天籟를 말한 듯하지만, 사실은 인위적 꾸밈이 없으며 자잘한 기교가 배제된 채, 각 사물의 타고난 성정의 자연스러운 유로를 중시한다는 『시경』의 ‘연비려천鳶飛戾天 어약우연魚躍于淵’과 같은 말이다. 달리 말해서 처한 위치에서 내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니, 다름 아닌 『중용』의 ‘소기위이행素其位而行’과 다르지 않다.

또한 <식영정기>에서 말한 식영息影 역시 장자의 유학적 수용이다. 장주가 말하는 진성眞性은 하늘에서 받은 것으로, 성인은 하늘을 본받아 진성을 잘 간직하고 세속적인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장주의 진성은 다름 아닌 정성의 극치요, 정精하고 성誠한 것으로, 이른바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원천적 내성이다. 진성은 곧 내성內省에 의해서 획득된 경지로서 곧 온전한 수기修己의 경지이다. 이때 성誠은 「중용」의 성誠과 통하는데 이는 간良과도 통하며, 정지가 아니라 운동이며, 창조의 세계를 뜻한다. 따라서 석천의 식영은 현실도피 또는 장자적 세계에의 몰입이 아니라, 계산溪山의 자연 승경 그 속에서 ‘소기위이행素其位而行’의 처지대로 행장行藏하여, 자연스러움에 어긋나지 않는 자족적으로 개척한 의경意境의 세계를 말한다.

석천은 시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을 공히 중시했는데, 시의 형식적인 면에서 ‘대방’은 노자 사상의 유학적 수용이며, 내용면에서 성정의 자연스러운 유로와 호탕함을 숭상한 태도는 장자의 ‘식영’에서 기인된 것이라 여겨진다. <희임대수견방론시>에서 말한 대방大方은 다름 아닌 무우無隅로서

커다란 방형은 모난 구석(稜角)이 없는 것을 이른다. 대방무우大方無隅는 대기만성大器晚成, 대음희성大音希聲, 대상무형大象無形 등과 같은 류, 숨어 있는 도도로써 쉽사리 이름 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학자인 석천에게 있어서 대방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유가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할 의무를 지닌 사대부였다는 점에서 볼 때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이념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현실 세계를 비판, 고발하고 풍자하며 지적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재조在朝의 몸이 되어 그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비판과 고발의 정신은 바로 『중용』의 ‘소기위이행’과 노자의 ‘대방’이 사상적 융합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석천의 서사시 세계는 임·병 양란 이후의 가사가 서정, 서사, 교술 중 하나의 성격이 극대화 된 것처럼, 현실 정치에 있을 때는 그 자리와 그 위치에서 현실비판, 현실개혁, 현실 고발, 민중 지향, 애민 정신 등의 성격이 극대화 된 서술시를 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석천 서정시의 진미는 그가 성산의 승경에 들면서 유가적 세계관을 중심 사상으로 하여 귀거래의 의지, 계산풍류와 평담, 평이와 담박 등 친 불가 및 친 노·장적 사상이 보조 내지는 부가 사상으로 작용한 결과, 그 처한 바의 위치에서 그에 충실한 서정시의 세계를 실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시인의 시학이란 당대 현실의 문제점을 냉철한 이성과 객관적 관찰력으로 정확히 포착하여,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또는 전면적으로 부각시킨 다음, 진지한 자세로써 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시 세계 또는 시 창작원리에서 실천하는 능력이라 한다면 석천의 경우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석천은 16세기의 조선사회 현실에서 자신이 지향한 유가적 세계지향과 합치되지 못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냉철한 이성과 객관적 관찰력으로 그것을 정확히 포착한 다음, 시로써 그 것들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학시學詩의 과정과 독서의 체험에서 체득된 중국의 시인들이나 『노자』나 『장자』 또는 불교 사상 등이 어우러진 시학을 통하여 드러냄으로써 문제의 심각

성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만의 표현 기법을 창안했다.

특히 친 불교와 친 노·장적 세계사유의 융·복합으로 자신의 유가 세계관을 재정립시킨 데서 그의 시는 낭만적인 성향도 한층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석천의 사상은 유학을 핵심 사상으로 하면서 불가, 노자, 장자의 세계관을 받아들여 그것들을 융합시키고 복합하여 석천만의 사상을 지녔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의 시학은 이러한 사상이 바탕이 되어 성정의 자연스러운 유로, 시 형식에서의 자유로움 추구, 시어의 선택이나 시구 구성에서 기교 배제, 시의 내용에 있어서 사사로운 개인적 문제의 관심지양, 현실적 생활인의 모습 발견과 보편적 관심사의 지향, 주제 표출에 있어서 심각성 배제, 주제전달의 극대화를 위한 소재영역의 확대 등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학으로 석천은 호남 시단의 사종詞宗으로서 귀거래 의식과 계산풍류溪山風流 및 평담平淡한 서정시를, 자유지향, 현실 비판, 민중지향 곧 애민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는 서술시의 세계를 펼쳐보일 수 있었다.

참고문헌

『노자』

『석천집』

『장자』

『중용』

『청송집』

『퇴계선생문집별집』

王叔岷, 『莊子校詮』, 下, 2007, 中華書局, pp.1237~1240.

김학성, 「가사의 장르성격 재론」,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pp.25~26.

박동량, 『기재잡기』

申欽, 『晴窓軟談』, p.393.

위옥승, 『한국문학에 끼친 중국문학의 영향』, 아세아 문화사, 1994, pp.135~137.

이석호 역, 『노자·장자』, 삼성출판사, 1999, pp.196~197.

이장우, 「퇴계시와 승려」, 안동한문학회, 『한국한문학과유교문화』, 아세아문화사, 1991, pp.743~753.

李濟臣, 「淸江先生詩話」, 『국역대동야승』(권14), p.77.

李中悅, 「乙巳傳聞錄」, 『국역대동야승』(권12), <임역령전>

任璟, 「玄湖瑣談」, 이종은·정민 공편, 『한국역대시화류편』, 아세아문화사, 1988, p.362.

장기근, 『도연명』, 태종출판사, 1975, pp.42~43.

조동일, 「이조사대부와 그문학」, 『대동문화연구』(제1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p.114.

조종업편, 『한국시화총림』(권1)

최한선, 「도연명이 호남시단에 끼친 영향」, 『동아인문학』(제6집), 동아인문학회, 2011, p.5.

최한선, 「석천시에 나타난 사상적 경향」, 『대구어문논총』(제10집), 대구어
문학회, 1992, pp.372~386.

최한선, 「석천 임억령 시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1994, pp.44~51.

許筠, 『惺叟詩話』, p.51.

황준량, 『금계집』, p.30.

<Abstract>

The Mind of Seokchoen's Poetry Creation -Philosophy and Poetics

Choi, Han-sun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a poet and his poetics. His philosophy has great effect on forming poetics. Seokchoen Im Eokyrung(1496~1568) is one of important poets in mid Chosun Dynasty. He wrote as many as 2,500 poems which classified narrative and lyrical poems. His voluminous poems shows his unique poetic mind and original poetics. His poetics must be formed with combining periodical situation, reading, and teachers. Among other things, his philosophy has great influence on forming his poetics. He was a confucian scholar who emphasizes real society focusing making nations great based on the confucianism. He has formed his philosophy through reading Tao Yuan Ming(도연명). Tao Yuan Ming was a pioneer to practice the teachings of Chung Yong(중용) in the real world. Criticism about condition of the society, love for the ordinary people is the theme of his narrative poems. He acquired the knowledge of Zhuangzi(장자) by his teacher and approached the philosophy of Lao-tzu(노자) and Buddhism by reading. These various learning contribute his poem to deepen philosophy and make his self-complacent and plain narrative poems broaden perspective. So his poems represent realist view, criticism on the world, expressing nature, and mission of the scholar distinctively.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thought of Zhuangzi, Buddhism and Lao-tze in his

poems is not the representation of inclination of these thoughts but only method of explaining real world.

Key words : Im Seokchoen, confucianism, Chung Yong, philosophy, poetics, lyrical poems, narrative poems.

투고일 : 2016년 1월 6일, 심사 : 1월 18일 ~ 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